



KOMSCO

# 화폐박물관 제 1 전시실

Currency Museum  
1st exhibition room



# 목차

## contents

---

제 1 전시실 주화역사관	3
1. 조선시대엽전주조	4
2. 화폐의 기원	5
3. 고대주화	6
4. 고려시대 주화	8
5. 조선시대 주화	10
6. 옛날 돈 이야기	18
7. 돈궤	19
8. 고대 화폐주형	20
9. 근대주화 압인기	23
10. 신안해저인양 중국전	24
11. 희귀고전	25
12. 근대주화	27
13. 한국은행 주화	30
14. 역대 기념주화	33
15. 월드컵 기념주화	47
16. 올림픽 기념주화	48
17. 주화는 어떻게 만들까?	49

제 1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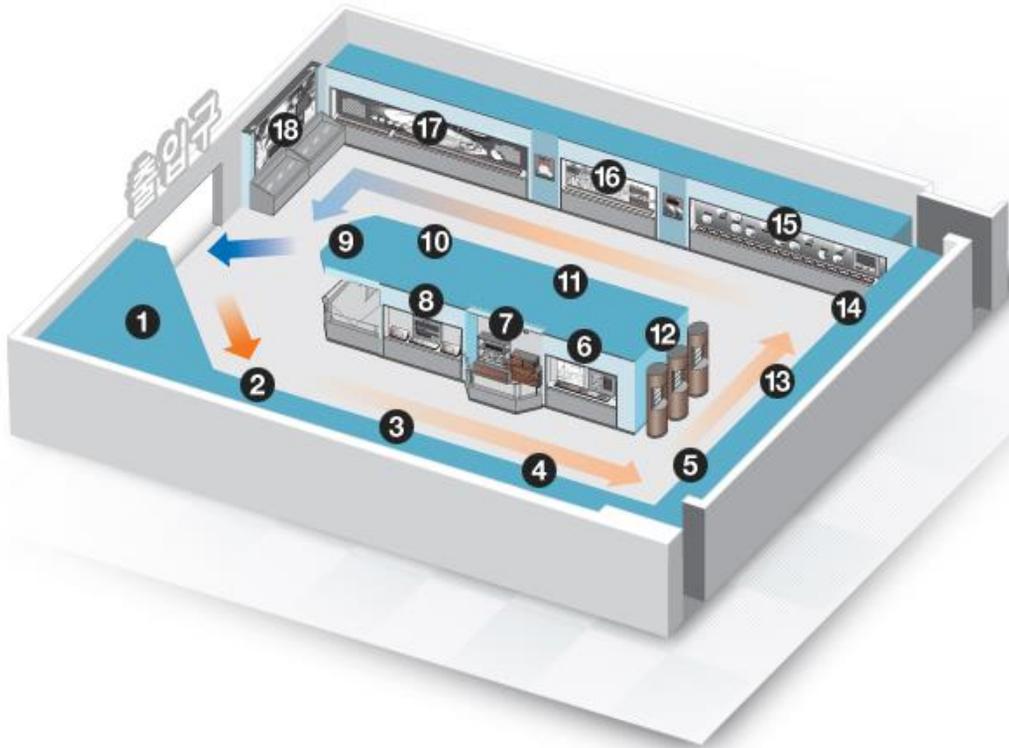
# 주화역사관

Coins Gallery

# 제 1 전시실 주화역사관

인간이 자급자족하던 시대의 물품화폐부터 기원전 금속화폐인 중국의 도전, 포전, 어폐, 반냥화와 현존하는 최초의 주화로 알려진 고려시대의 건원중보와 조선시대의 대표적 주화인 상평통보 및 상평통보 주조광경이 사실적으로 연출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인 거꾸집(주형), 조선시대 별전, 신안해저인양 중국전 등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고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귀금속화폐인 대동은전과 경성, 인천, 용산, 일본 오사카 조폐국 주화, 근대화폐 제조를 위해 독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근대 압인기가 전시되어 있다.



- |             |                               |                  |
|-------------|-------------------------------|------------------|
| 1. 조선시대엽전주조 | 7. 돈궤                         | 13. 근대 주화        |
| 2. 화폐의 기원   | 8. 고대 화폐 주형                   | 14. 한국은행 주화      |
| 3. 고대 주화    | 9. 근대 주화 압인기                  | 15. 역대 기념주화      |
| 4. 고려시대주화   | 10. 신안해저인양 중국전                | 16. 월드컵 기념주화     |
| 5. 조선시대주화   | 11. 희귀 고전                     | 17. 올림픽 기념주화     |
| 6. 옛날 돈 이야기 | 12. 주화의 소재, 세계의 은화,<br>세계의 위인 | 18. 주화는 어떻게 만들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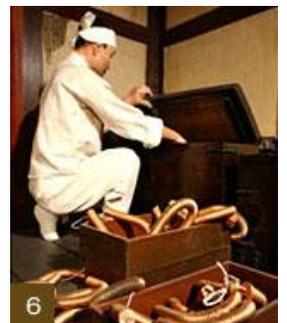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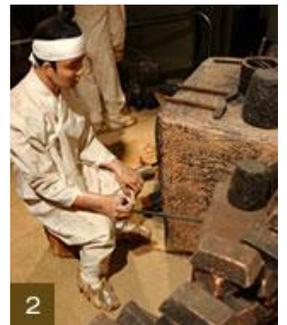
# 1. 조선시대 엽전주조



전시된 모형은 조선시대 후기 주전소에서 주물사(鑄物沙)에 의한 방법으로 엽전을 만들던 모습을 축소 모형을 이용하여 재현한 것이다.

## 조선시대 엽전주조과정

1. 거꾸집에 모래를 채우고 엽전이 달린 가지 모양을 찍어낸다.
2. 도가니에 구리, 주석 등을 넣고 고열에 녹여 쇠물을 만든다.
3. 거꾸집의 구멍으로 쇠물을 부어 넣는다.
4. 굳으면 거꾸집을 갈라서 엽전을 떼어 낸다.
5. 엽전의 거친 부분을 다듬는다.
6. 완성된 엽전을 정리한다.



## 2. 화폐의 기원

원시사회에서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이용된 물품화폐, 즉 실물화폐는 주로 곡물, 직물, 가축, 농기구, 무기, 모피, 장식품 등이었다. 점차 물물교환이 활발히 행해지면서 사람들은 같은 양으로 나눌 수 있고, 가지고 다니기에 편하며 썩지 않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 볍씨 담긴 항아리

곡물은 가장 대표적인 물품화폐로 국가에 대한 세납과 지불수단으로 통용되었다.



중국 <한서지리지>에 전하는 범금8조(犯禁八條)에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기원전 16세기경 조개 껍질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널리 쓰이면서 중요한 화폐의 기능을 하였다. 중국 근해에서는 많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극히 귀중하게 여겨졌다. 포전(布錢)은 농기구 모양으로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농경이 주산업인 중원지방에서 주도되어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다. 도전(刀錢)은 칼모양을 본 따 만든 화폐로 고대중국에서 춘추전국시대에 융성했던 제나라를 중심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 3. 고대주화

## 동양의 고대주화

반양의 형태에서 원은 하늘을, 사각형은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동전 하나에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이 숨어 있다. 또한 가운데의 사각 구멍은 제조와 유통상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과였다. 거꾸집을 써서 한 번에 수천 개씩 주조한 주화들을 완성시키려면 거친 모서리를 제거해야 했는데 그럴 때 사각구멍은 금속막대를 넣어 고정시켜 한꺼번에 줄질하기 쉽게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각 구멍에 끈을 넣어 백 개나 천 개씩 묶어서 사용해 유통과 운반, 보관 등이 편리했다.



반량화

### 개원통보(開元通寶)

중국 당(唐)나라 청동화로, '개원(開元)'이라는 것은 연호가 아니고 개국건원(開國建元)의 준말로 당나라의 창업을 기념한 것이다. 당나라 초기인 621년 처음으로 주조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 중국전(中國錢)의 유입과 유통

중국과 우리나라는 오래전 부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의 고분 등에서 출토되는 중국전에는 당전과 송전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말에는 상평통보에 비해 조잡하고 값싼 청조전(淸朝錢)이 다량 유입되어 상평통보와 함께 유통되었다.

## 서양의 고대주화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된 서양화폐의 역사는 대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유산인 헬레니스틱 왕국들의 시대를 거쳐 로마로 이어지게 된다. 고대 로마의 화폐는 그리스 화폐의 연장에 불과했으나 서기 1세기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가 로마화폐 제도를 확립한 이후로 황제마다 자신의 초상을 주화에 넣는 특유의 화폐문화를 이루었다. 로마는 영토가 넓어 지역마다 화폐의 종류나 액면이 조금씩 달랐지만 이탈리아 반도 중심의 본국에서는 금화인 1 아우제우스 및 1/2 아우제우스, 은화로는 1 데나리우스와 1/2 데나리우스, 동화로는 두폰디우스, 콰드란 등의 다양한 액면과 소재의 화폐들이 발행되었다.



일렉트럼 코인

### 최초의 금화 일렉트럼 코인(Electrum Coin)

B.C.670년경 리디아(지금의 터키)에서는 금, 은의 천연 합금인 호박금(Electrum)으로 사자머리 도안을 새긴 귀금속 주화를 제조하였다. 서양 최초의 금속 화폐로 금속의 무게를 증명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표준 가치를 알 수 있었으므로 '스테이터', '스탠더드'로 불렸다. 사자와 황소와 같은 동물 도안이 타각(打刻)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그리스, 로마로 전파되었다.



테트라드라크

### 그리스 4드라크마 은화, 테트라드라크

B.C.510년경 아테네에서 제조, 성스런 새인 올빼미와 올빼미 옆에는 A, TH, E라는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아테네인들의' 라는 뜻이다. 호박금 [금과 은의 천연 합금]이나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들 코인은 초기에는 한쪽 면에만 조각되었다. 그 후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 성조(올빼미), 곡식의 이삭, 지배자의 얼굴들이 양면에 새겨졌고, 만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것도 있다. 헬레니즘시대에는 각 국 왕조 지배자의 용맹함을 찬양한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주화

우리민족은 고조선 시대에 이미 자모전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삼한시대에 와서는 철이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지배계층의 무덤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관곽(棺槨) 바로 밑에서 일정한 규격을 갖춘 많은 양의 철정(鐵錠)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철이 무기와 농기구의 원료이면서 화폐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고려시대 주화

###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 <건원중보>

성종15년(996년)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乾元重寶(건원중보) 뒷면 東國(동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로 알려져 있다. 건원중보는 중국의 당 숙종 2년(759년)부터 주조된 엽전인데 중국의 건원중보와 구별이 어려워 상, 하부에 "東國"자를 앞면으로 내어 동국중보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가진 최초의 주화가 되었다.



건원중보(앞면)

건원중보(뒷면)

### 소은병

은을 재료로 하여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따 만든 소은병 1101년 고려 숙종은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따 만든 은병을 발행하였다. 은병 1개의 가치는 포목 100필에 해당하는 고액으로 주로 국가간의 교역에 사용되었다. 그 후 은의 조달이 힘들어 지고, 동을 혼합한 위조가 성행하자 1331년 은병의 크기를 크게 축소한 소은병을 발행하였으나 이 역시 위조가 나돌아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1408년 유통이 금지되었다.



소은병

### 쇄은

정확한 양의 순은으로 만들어 교환과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칭량 화폐

---

## 무문전

성종15년(996)에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 사회가 불안정했던 시기였지만 겨우 무문철전을 주조할 정도로 문화수준이 낮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무문전은 성종 15년 철전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무문철전과 무문동전은 유통수단으로서 제조된 것이 아니라 부장용(副葬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무문전

---

## 동국중보

이로부터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東國通寶(동국통보), 삼한중보(三韓重寶), 三韓通寶(삼한통보), 海東重寶(해동중보), 海東通寶(해동통보), 海東元寶(해동원보) 등 8종이 주조되었으며 읽는 방법이나 서체를 세분하면 약 100여종에 이른다. 또한, 동전의 명칭에 三韓, 海東, 東國 등은 우리나라의 부르는 이명이나 별호로써 중국과 일본의 것과 구별된다.



동국중보

## 5. 조선시대 주화

조선왕조에서는 '조선통보', '십전통보',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조선통보'는 세종 5년(1423)에 해서체로, 인조 11년(1633)에 8분 서체로 각각 발행하였으며, '십전통보'는 효종 2년(1651)에 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화폐를 대표할 수 있는 '상평통보'는 숙종 4년(1678) 이후 고종 25년(1888)까지 200여년동안 주전소(鑄錢所), 전가(錢價), 서체(書體), 부호(符號), 천자문순(千字文順), 숫자순, 오행순(五行順) 등으로 나뉘어져 약 3000여 종류가 발행되었다.



조선통보

### 조선통보

세종 5년(1423년)조선시대 최초의 동전인 '조선통보'의 발행을 보게 되었다. 정부는 조선통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선통보 전용령'을 공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잘 유통되지 않았고 면직물류의 포화가 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소액 거래에는 미두(米豆)가 사용되었다.



십전통보

### 십전통보

효종 2년(1651) 7월 우의정 한홍일의 건의에 따라 민간에서의 사주전(私鑄錢)이 허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화폐유통을 적극 장려할 목적으로 '행전사목(行錢事目)'을 제정 실시하였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백성들이 동전 50문씩 지니고 다닐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상의 사주전 허락은 50문씩 동전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의무수행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하여 '십전통보(十錢通寶)'를 주조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상평통보

### 상평통보

숙종(1678~1720) 대는 우리나라 화폐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시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상평통보'가 주조, 발행되어 우리나라 화폐사상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유통되었다. 이처럼 상평통보가 조선시대 말기까지 약 2세기에 걸쳐 지속적인 통용력(通用力)을 가지고 화폐의 일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 행전사목 (行錢事目) 요약

첫째, 화폐가치를 정하여 미곡 1.8ℓ를 동전 4문으로 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인정하였다. 둘째, 각 사의 수속(收續), 면천(免賤), 노직공명첩(老職空名帖)을 모두 동전으로 대납하게 하였다. 셋째,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동전을 매개로 하여 교환하도록 하였다. 넷째, 민간인이 원하는 때 상평청은 미곡과 동전을 자유로이 교환해 주도록 하였다.

## 상평통보

숙종(1678~1720)대는 우리나라 화폐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시기를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 '상평통보'가 주조, 발행되었다. 이처럼 상평통보가 조선시대 말기까지 약 2세기에 걸쳐 지속적인 통용력을 가지고 화폐의 일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하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17세기 중엽부터 점차 국내외 교환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유통부문에 일반적인 교환수단의 재개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인조-효종 연간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동전 통용시도와 개성 등지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화폐유통으로 화폐의 기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었다.

셋째 임진왜란 이후 국토가 황폐하고 농민이 이탈하여 토지 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재정이 궁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지출은 계속 가중 되어 갔으므로 이의 보완책이 간절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 상평통보의 분류

상평통보는 당일전, 당이전, 당백전, 당오전 등으로 구분하여 소형과 대형전으로 분류된다.



당일전 1678.4

당이전 1679.9

당오전 1883.7

당백전 1866.11

### 당일전(當一錢)

숙종4년(1678. 4)' 상평통보'의 발행이 개시되자 조정은 호조(戶曹) 상평청(常平廳)을 비롯한 중앙관서와 각 지방관서에 명하여 상평통보를 주조 발행하게 했다. 이때 발행된 상평통보를 초주 단자전이라고 한다.

### 당이전(當二錢)

숙종5년(1679. 9)조정은 상평통보의 규격을 달리하여 당이전이라고 하는 대형전을 발행하였다. 당이전은 종래의 초주단자전과 구별하기 위해 뒷면 하부에 "二(2)"자를 표시하여 발행하였다. 당시에는 초주단자전(初鑄單字錢)과 신종 당이전이 동시에 병행 유통되다가 그후부터는 초주단자전이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 당이전이 상평통보를 대표하게 되었다.

※ 영조28년(1752) 7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세군문의 주전관아(鑄錢官衙)에서 동전 총 44만4천냥을 신규제조 하였는데 이때의 동전은 소재 절감을 도모한 까닭에 동전의 크기가 약간 작아진 소위 중형 상평통보이다.

### 당백전(當百錢)

고종3년(1866. 11) 대원군은 상평통보 뒷면에 호대당백(戶大當百)이라는 글자를 넣어 고액화폐 당백전을 주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듬해인 고종4년(1867. 5) 주조가 중지되었다.

### 당오전(當五錢)

우리조정은 개항이래 막대한 개항경비, 외국사건에 대한 보상금 신식군대의 설치비, 여러가지 정부 비용들이 새로 발생되어 재정의 궁핍은 가속도적으로 가중된데다 임오군란까지 일어나 조정의 재정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직면하자 조정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종20년(1883. 7) 당오전을 주조 발행하게 되었다.

## 상평통보의 종류

### 천자문 순(千字文順)

천자문은 중국 남조(南朝) 양(梁)의 주흥사(周興嗣 : 470~521)가 글을 짓고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의 필적중에서 해당되는 글자를 모아 만들었으며 사언고시(四言古詩) 250구로 천지현황(天地玄黃)에서 언재호야(焉哉乎也)까지 1,000자가 각각 다른 글자로 되어있다. 상평통보의 당이전 중에는 천자문순전이 있는데 각 주전소에 따라 분류되며 서체와 크기에 의해서 세분된다. 천자문순 주조가 허가된 중앙관아는 어영청, 훈련도감, 호조 등 6개 관영이었으며, 지방관영으로는 평안감영, 함경감영, 경상감영, 전라감영, 개성관리영 등이었다. 대개 주전소마다 '천(天)'자에서 '왕(往)'자까지 20가지 내외였으나 평안감영에서는 '천(天)'자에서 '수(水)'자까지 모두 44가지로 가장 많이 발행하였다. 그리고 통영에서 주조된 뒷면 '통(統)'자는 많은 종류로 구분하여 발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 숫자 순

당일전과 당오전에는 숫자순이 있다. 뒷면 상부에는 주조처가 새겨져 있으며 하부나 우부, 좌부 등에는 통상적으로 '1(一)'부터 '10(十)'까지의 숫자가 새겨져 있다.



## 부호순

오사(五事)라고 일컬어지는 세(歲), 일(日), 월(月), 성진(星辰), 역수(曆數) 가운데 일(日), 월(月), 성(星)과 그밖에 종표(從標), 괘표(卦標) 등을 부호로 정하고 뒷면에 새겨 넣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 오행순(五行順)

우주간에 운행하는 원기로서 만물을 낳게 하는 목, 화, 토, 금, 수의 5 원소를 상평통보 뒷면에 새겨 넣었다. 오행설이라는 말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서 전국시대의 사상가 추연(騫衍)에 의해 제창되었다. 이 5원소는 일종의 자연 철학 내지는 자연과학으로 동양적인 인생관, 세계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 당백전 (當百錢)의 발행

19세기 중엽 대원군 집정 초기에 중앙집권적 체제를 재확립함과 동시에 안으로는 왕조위신의 선양을 목적으로 착수한 경복궁 중건비용을 조달하고 궁핍한 국가재정을 보완하며, 밖으로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막는데 필요한 군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종3년(1866) 10월 당백전의 주조발행을 결정하게 되어 1867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주조사업이 이루어 졌으며 주조 총액은 1천 6백만냥이라는 거액에 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백전을 대량으로 발행 통용시킴으로써 거액의 임시적 수익을 얻어 시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점차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물가의 폭등으로 국민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악화 당백전의 발행을 계기로 조선 왕조말기에는 화폐제도의 문란이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었다.

---

## 상평통보 단자전(單字錢)

단자전이라 함은 상평통보 뒷면에 글자가 하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초 주조연대는 숙종4년(1678)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글자가 둘 있는 것도 그것이 주전소의 약칭을 표시하는 것이면 단자전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단자전은 본래의 '외자전'이란 의미에서 그 주전소의 최초 주조전(鑄造錢)을 대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

## 중형전 (中型錢)의 출현

영조28년(1752) 7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세군문의 주전관아(鑄錢官衙)에서 동전 총 44만4천냥을 신규 제조하였는데 이때의 동전은 소재 절감을 도모한 까닭에 동전의 크기가 약간 작아진 소위 중형 상평통보이다.

## 주전소

### 주전소 소재지

중앙 사복시, 경리청, 공조, 군역청, 금위영, 무비사, 무위영, 창덕궁, 정초청, 총융청, 양향청, 호조, 훈련도감, 상평청, 병조, 비변사, 선혜청, 수어청, 어영청, 전환국, 진흥청



## 주전현황

우리나라 엽전의 대명사인 상평통보는 주조처가 뒷면 상단에 새겨져 있다. 50여개소나 되는 전국의 주조처들은 나름대로 표시를 남겼는데 호조의 경우 '호(戶)'자를 평안감영의 경우 '평(平)'자 등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주종이다. 그러나 예외로 경기도 강화관리영에서 주조한 엽전에는 '심(沁)'자가 새겨져 있으며 경기도 광주관리영 주조 엽전에는 '기(圻)'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궁중의 임금이 타고 다니던 수레와 말, 마구 등의 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 사복사에서 주조한 엽전에는 '경'자 등이 새겨진 것이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경 - 사복시(司僕司)	영(營) - 어영청(御營廳)	비(備) - 비변사(備邊司)
경(經) - 경리청(經理廳)	전(典) - 전한국	선(宣) - 선혜청(宣惠廳)
공(工) - 공조(工曹)	진(賑) - 진휼청(賑恤廳)	혜(惠) - 선혜청(宣惠廳)
균(均) - 균역청(均役廳)	창(昌) - 창덕궁(昌德宮)	수(守) - 수어청(守禦廳)
금(禁) - 금위영(禁衛營)	초(抄) - 정초청(精抄廳)	향(向) - 양향청(糧餉廳)
무(武) - 무비사(武備司)	총(摠) - 총융청(摠戎廳)	호(戶) - 호조(戶曹)
무(武) - 무위영(武衛營)	병(兵) - 병조(兵曹)	훈(訓) - 훈련도감(訓練都監)

구분		단자전	당일전	당이전 중형	당이전 천자문순	당이전 "二"字	당오전	당백전
중앙	궁내	○	○	○	○	○	○	○
	호조	○	○		○	○	○	
지방	강원	○				○	○	
	경기	○	○		○	○	○	
	경상	○			○	○	○	
	전라	○			○	○		
	충청	○				○		
	평안	○	○		○	○	○	
	함경	○	○		○	○	○	
	황해	○				○		

## 6. 옛날 돈 이야기

상평통보를 만들 때 선조들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나뭇가지의 원리를 이용해 대량생산을 했다. 즉 상평통보의 형틀을 만들 때 서로 연결 되도록 골을 팜으로써 쇠물을 부으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주조되었고 이것이 굳어지면 하나씩 떼어내어 연마하였는데, 떼어내기 전의 모습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 같다 하여 "엽전(葉錢)"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화폐단위로 "일관(貫)= 십량(兩)=백전(錢)=일천문(文)"의 10진법을 사용 하였는데 엽전(상평통보) 한 닢은 일문이었으면, 이 중에서 량(兩)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 엽전

#### 엽전에 매달린 가지쇠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매달린 것 같은 모양의 형틀을 짜고 그곳에 쇠물을 부어 넣게 한 후 개개의 잎사귀를 떼어내면 엽전이 된다.



엽전의 모양을 보면 밖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뜨고 안이 모난 것은 땅을 본뻗다 하면서, 이는 만물을 하늘이 덮고 땅이 실어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생김새를 한 돈은 어디든지 흘러 다니고 백성에게 두루 퍼져 날마다 써도 무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12세기 말에 임춘(林椿)이 지은 [공방전(孔方傳)]에서는 엽전 형태의 돈을 의인화하여 돈의 내력과 행적을 재미있게 서술하였는데 이때 '공(孔)'은 둥글다는 뜻이고 '방(方)'은 모나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생각의 한 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엽전이라는 이름은 그 제작과정에서 유래되었다. 엽전을 만들 때 금속활자주조 방식과 마찬가지로 나뭇가지 형태의 가지쇠를 이용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즉 엽전의 형틀을 만들 때 서로 연결되도록 골을 팜으로써 쇠물을 부으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주조되었고 이것이 굳어지면 하나씩 떼어내어 연마하는데, 떼어내기 전의 모습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 같다 하여 '엽전(葉錢)'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7. 돈궤

우리 민족문화의 화려한 전통을 계승하여온 조선왕조의 목공예는 성실하고 너그러운 조형기질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 돈궤 역시 간결한 기능미를 자랑하는 목공예로서 소재와 장식의 형태나 특성이 서로 다르며 엽전, 별전 및 개금패(開金牌)등을 보관하였다.



구분	연대	산지	재질	장식
1	조선시대	경기도	소나무	무쇠장식
2	조선시대	호남	소나무	무쇠장식
3	조선시대	경상도	과목	무쇠장식

## 8. 고대 화폐주형

주전(鑄錢) 기술이 가장 일찍 발달된 중국에 있어서는 활석(곱돌)이나 흙으로 용법(거푸집)을 만들어 주조하는데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청동기 시대에 동검을 제조하는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형의 사용방법

1. 곱돌을 깎아서 암틀, 수틀 2개의 거푸집을 만든다.
2. 암수 2개의 거푸집을 맞추어 묶는다.
3. 거푸집을 흙 속에 묻고 녹인 쇠물을 주구를 통하여 주입한다.
4. 거푸집을 풀어서 엽전을 꺼낸다.
5. 냉각 후 엽전의 거친면을 줄칼로 갈아 마무리한다.

### 반량(半兩) 주형

B.C 3세기 진(秦)나라 시황제는 분서갱유(焚書坑儒) 만리장성 축조의 혹독한 부역으로 인하여 폭군의 낙인이 찍혔으나 천하통일 이전까지 무질서하게 난립하던 문자체, 도량형, 화폐제도 등을 통일하였으며 보조화폐로서 반량(半兩)을 기본단위로 하는 청동화를 사용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이 주형은 당시 유통되었던 원형방공의 반량화를 주조한 석제주형(石製鑄型)으로서 극히 귀중한 자료이다.



반량 주형

## 다양한 모양의 주형

A.D 8년 한(漢)의 천하를 빼앗은 왕망(王莽)은 신(新)이라는 나라를 세워 10여년간에 4차례의 화폐개혁으로 무려 37종의 새 화폐를 발행하였다. 왕망(王莽)은 낭만주의적 복고주의 취향이 있어 춘추전국시대의 도전(刀錢)과 포전(布錢)등을 본떠 세련된 모양의 대천오십(大泉五十) 소천직일(小泉直一) 금화 일품(一品) 은화 이품(二品) 화포(貨布) 화천 등의 화폐를 만들었으며 이를 총칭하여 왕망전이라고 하였다. 당시의 주형은 대개가 토제(土製)로서 반량화의 석제와는 대조적으로 간편한 주형 제조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화포(貨布)

춘추전국시대의 포전(布錢)을 본떠 만든 왕망시대의 대표적 주화. 세련된 자체와 매끈한 모양이 돋보인다.



화포 주형

### 소천직일(小泉直一)

왕망이 발행한 20여가지 액면의 주화들 중 가장 작은 주화.



소천직일 주형

## 다양한 모양의 주형

### 대천오십(大泉五十)

유천일십(幼泉一十), 유천이십(幼泉二十), 중천삼십(中泉三十), 장천사십(壯泉四十), 대천오십(大泉五十)의 다섯가지 주화시리즈 중 제일 큰 액면의 주화



대천오십주형

### 일도평 오백(一刀平 五百) 주형

신(新)나라 왕망전(王莽錢)중에는 엽전(丹形方孔)에 칼을 붙인 모양을 가진 「일도평 오천(一刀平 五千)」과 「일도평 오백(一刀平 五百)」을 볼 수 있다. 「일도평 오천(一刀平 五千)」은 일도(一刀)의 두글자를 금상감으로 처리하여 가치를 높여 종래 엽전의 오천배의 액면을 가진 것으로서 중국 엽전 사상 가장 큰 액면의 주화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일도평 오백(一刀平 五百)」도 높은 단위의 주화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일도평오백」주형(鑄型) 역시 토제로 되어 있으며 그 엽전 자체가 특이한 것만큼 이 주형(鑄型)도 귀중한 자료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일도평오백주형

### 분서갱유(焚書坑儒)

책을 불태우고 학자를 생매장한 일, 중국을 통일한 황제의 권력을 확대 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BC 213년에 진(秦)의 시황제가 취한 사상 및 사상가에 대한 통제, 탄압사건을 말한다. 시황제는 승상 이사(李斯)의 말을 듣고 진에 대하여 서술되어 있지 않은 역사책을 불태웠고 이어서 민간이 소장한 책중 의학복서 종수(種樹)외 모든 책을 거두어 불살랐다. 그리고 불노불사약을 제조하는데 실패한 술사와 황제를 비방한 학자 등 460명을 생매장하였다.

## 9. 근대주화 압인기

압인기는 상설기구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폐기관이었던 경성 전환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근대 화폐를 제조하기 위하여 고종 23년(1886) 독일에서 압인기 3대와 압사기(壓瀉機)등, 11종이 동시에 수입되었던 기계중의 하나로서 금화, 은화, 적(赤)동화를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폐기관이었던 경성 전환국에서 근대 화폐를 주조하기 위해 고종 23년(1886년) 독일에서 압인기 3대와 압사기 등 11종을 수입하였다. 경성 전환국은 압인기로 금화를 시주하였다. 금화의 모양은 앞면 중앙 상부에 태극장이 있고 좌우에는 조선왕실을 뜻하는 오얏나무가지가 교차되었다.



이십환금화 이화회장 1906



이십전은화 1906



일전동화 1910



오전백동화 1905

# 10. 신안해저 인양중국전

**600년전 중국 무역선과 중국전**  
Chinese Merchant Vessel and Coins about 600 years ago

- 발굴위치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해저
- 추정연대 14세기 초경
- 선체규모 길이(長) 28.4m, 너비(幅) 7.2m
- 발굴유물 도자기 20,691점, 동전 28톤  
금속제 729점, 석제 45점,  
목제 1,017점, 기타 575점
- 의 의 중세 동북아 무역선 1척과 수만 점의 무역품들로 당시 교역상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신안선 상상복원도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중국 동전꾸러미

신안선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세 동북아 무역선으로 추정된다. 신안선에서는 28톤의 동전이 발굴되었는데, A.D.14년에 만들어진 중국 신나라의 화폐인 '화천'부터 원나라의 '지대통보'에 이른다. 1,300년에 걸친 234가지 800만개의 동전이 발굴된 것은 신안선의 항해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이다.

# 11. 희귀고전

## 별전

우리나라 '별전'은 조선조 숙종 4년(1678)부터 주조하기 시작한 상평통보의 발행과 그 역사를 같이 했다고 한다. 즉 상평통보의 주조 시 주전관인 호조에서 그 재질과 중량 등을 시감(詩監)할 때 만들어진 일종의 시주화 내지 기념화로서 법화인 상평통보처럼 유통되지 않고 당시의 왕실 또는 지체 높은 사대부 계급의 기호품으로 애용되었다.



식물전



부조전



실패전



부채전



식물전



동물전



동물전

## 열쇠패

우리의 열쇠패는 일명 개금패(開金牌)라고 부르고 있다. 고종조(高宗朝) 전 후에 만들어진 열쇠패는 조선왕조 후기의 상류사회에서 신부의 귀중한 혼수품으로서 가보처럼 애장 되었다. 이 열쇠패는 불길(不吉), 불상(不祥)을 제방(除防)하려는 길상희원적 우의(吉祥希願的 寓意)가 다분히 의장화(意匠化)되었고 그 형태는 각형(角形)과 원형, 방형(方形), 주머니형, 용형(龍形) 및 나비형 등으로 구분하며, 형태와 구도 및 문양 등은 왕가 열쇠패를 비롯하여 10여개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 수복 십이지상(壽福 十二支像) 열쇠패(牌)

10cm가량의 원형으로서 중앙 한복판에는 옛날의 태극무늬와 팔괘(八卦)가 그려져 있고 다음줄엔 무장한 십이지상이, 제4열에는 28숙(宿)의 성진(星辰)이, 그리고 제5열에는 50자의 수복(壽福)문자와 바깥 줄의 둘레에는 9개의 박쥐날개를 연결한 무늬가 그려져 있다. 뒷면의 무늬는 앞면과 거의 비슷하나 다만 제3열에 8개의 원속에 수(壽), 복(福), 보(寶), 백(百)의 네 글자가 적혀 있고, 다음 줄에朱雀(朱雀), 백호(白虎), 현무(玄武), 청룡(靑龍)과 서운(瑞雲), 바람, 솔, 물결, 그림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 12. 근대주화

근대주화는 조선시대 말기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의 화폐로서, 화폐제도를 서구식으로 개혁하기 위해 전환국을 신설하여 금, 은, 동, 청동 등의 소재로 압인방식에 의해 발행한 주화이다.

### 대동은전 (大東銀錢)

개항이래 외국상인들이 왕래하게 되어 외국 화폐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소재는 모두 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국제거래상 아주 불편하였다. 그래서 고종19년(1882)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은화인 대동일전, 대동이전, 대동삼전이 제조되어 전근대적인 상평통보와 근대적 화폐라고 볼 수 있는 대동은전이 나란히 유통되었다.



대동삼전

대동이전

대동일전

### 마제은(馬蹄銀)

중국에서 사용된 은 중량 통화의 하나로서 말굽은이라고도 한다. 마제은(馬蹄銀)은 큰 거래나 저축용으로 주조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882년 근대전인 대동은전의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곧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대동은전 제조에 차질을 빚어 대동은전이 사라지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 경성전환국

고종 20년(1883)에 경성에 조폐기관인 전환국을 설치하여 상시로 주화를 주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설 조폐기간이 설립하게 된 동기는 극심한 궁핍에 빠진 국가재정상 급하게 필요 되는 당오전을 많이 또 속히 주조하여 조정에 공급하는데 있었다.



일환은화 1886



십문동화 1888

오문동화 1888

## 인천전환국

고종 29년(1892. 5) 일본에서 수입되는 주화용 원료은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전환국을 이전하였으며 닷량은화와 일량은화, 이전오폴 백동화, 오폴동화, 일푼동화 등이 발행되었다.



닷량은화 1892



오폴 청동화 1895

일량은화 1892

## 용산전환국

우리나라는 격증하는 화폐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일차관으로 인천전환국 확장공사가 한창 진척되고 있을 무렵 고종황제의 명에 의하여 전환국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광무 4년(1900) 건축을 마치고 광무 5년(1901)부터 본격적인 화폐제조를 시작하였다.



십한 금도금 청동 시주화 1901

## 일본 오사카 조폐국

전환국이 폐지된 후 광무 9년(1905) 금본위제도를 확립하고 이십원, 십원, 오원 등 금화 3종과 반원, 이십전, 십전 등의 은화와 오전 백동화, 일전, 반전동화를 일본 오사카 조폐국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였다.



이십환금화 이화휘장 1906

반환은화 1906

# 13. 한국은행 주화

1910년 일제강점 후 우리나라의 주화는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이 발행한 주화를 사용하였다. 1950년 6.25 동란 이후 급등을 계속하던 물가가 1958년에 이르러 크게 안정되고 산업생산도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여 화폐가치에 대한 신임이 크게 확보되자 한국은행은 화폐체계의 정비와 제조비 절감 및 소액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59년 10월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제조 도입된 십환 황동화, 오십환 양백화, 백환 백동화를 발행함으로써 실로 반세기 만에 우리의 주화가 재등장 하게 되었다.

1966년 한국조폐공사기술에 의해 십원, 오원, 일원 등 3종의 주화가 제조되었으며 1970년 11월에 백원 주화, 1972년 12월에 오십원 양백화가 발행되었다. 1982년 6월에 통용주화로서는 최고 액면 주화로 오백원 백동화가 발행되었으며 이어서 1983년 1월 신화폐 체계정비에 의한 새 얼굴의 주화 5종이 발행되었다.

## 초대 대통령 초상

우리나라 최초로 발행된 주화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거북선, 무궁화 등이 도안되어 있으며 백환화에 새겨진 우남 이승만(霧南 李承晩)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서재필의 영도하에 설립된 협성회, 독립협회등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미국에 머물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등에서 수학,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제강점으로 귀국, 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활약 1917년 안창호 등과 협의하여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대회 대표를 파견시켰으며, 1919년 3.1운동 후 본국에서 조직된 한성임시정부와 상하이에서 선포된 임시정부에서 각각 최고 책임자인 집정관 총재와 국무총리로 추대되자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광복 후 귀국하여 우익 민주진영의 최고지도자로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총재, 민주의원 의장, 48년 제헌국회의장에 이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백환 1959.10.30

오십환 1959.10.20

십환 1959.10.20

오백원 1982.6.12

백원 1970.11.30

오십원 1972.12.1

십원 1966.8.16

오원 1966.8.16

일원 1966.8.16

---

## 거북선

1592년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의 고안으로 건조된 세계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鐵甲戰船)이다. 이충무공(李忠武公)의 난중일기에 의하면 거북선에 설치한 포를 처음 쏘아 본 것이 임진년(1592) 3월 27일이며 처음으로 해전에 참가한 것은 사천(泗川) 해전이라고 한다. 거북선이 임진왜란때 돌격전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고 전란 후에는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여 용머리(龍頭)는 거북머리가 되고, 치수도 일반적으로 장대해지는 등 차차 크게 건조되었는데 1795년(정조19)에 간행된 이충무공 전서에 "전라좌수영 거북선" 및 "통제영 거북선"의 그림과 함께 건조에 필요한 부분적인 치수가 어느정도 기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다보탑

국보 제20호로서 다보여래의 사리를 모시어 세운 탑.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이 경을 설할 때에 다보여래의 진신사리를 모셔둔 탑이 땅 밑에서 솟아나오고 그 탑속에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하고 증명하였다고 한다. 이를 근원으로 하여 세워진 탑이 다보탑이다. 이 탑의 구조는 대개 옥개아래 상층을 붙인 조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732년에 무현동남쪽에 처음 세워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56년(신라경덕왕10) 김대성에 의해 세워졌다.

---

## 벼이삭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세계식량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화 발행 권장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주제로 벼이삭과 잎사귀를 사실적으로 도안하였다. 벼는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중국의 기록과 김해 패총(貝塚)에서 발굴되었으며, 탄화된 쌀 덩어리 및 기타 유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벼를 재배하였음이 추정된다. 그러나 1976년 경기도 여주에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미가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이 매우 오래전임을 추정할 수 있다.

---

## 이순신 장군 초상

인종1(1545년)~선조31(1598년), 시호 : 충무

1576년(선조9) 식년 무과에 병과로 급제, 미관 말직만을 지내다가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승진 좌수영에 부임하여 군비 확충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천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대승하였다.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 등지에서 대승하여 최초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으나 1597년 원균의 모함으로 투옥되었다가 정유재란때 원균이 참패하자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마지막 노량대첩에서 적의 유탄에 전사하였다. 투철한 조국애와 뛰어난 전략으로 민족을 왜적으로부터 구해낸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인물의 한사람으로 문장에도 뛰어나 난중일기와 시, 시조, 한시 등 여러편의 작품을 남겼다. 초상은 정부지정 표준영정에 의하여 도안하였다.

---

## 학(두루미)

학은 소련 한까 호반에 약 100마리, 만주 동북부 지방에 약 100마리 일본 북해도 지방에 약 270마리가 물기가 많은 초지(草地)에 서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남하 이동하여 중국 동남부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겨울철새로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 보호하는 국제 보호조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와 장수의 상징으로 많은 그림이나 예술작품 등의 소재로 삼고 있으며 특히 십장생도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화 중 최고액면에는 비상의 나래를 펼길조(吉鳥)로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는 학이 새겨져 있다.

---

## 무궁화(無窮花)

예로부터 근화(槿花), 시객(時客)등으로 일컬어오던 무궁화는 우리 겨레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영광(榮光)과 수난을 함께 해온 민족(民族)의 꽃이다. 이 꽃은 우리 겨레의 꽃으로서 만이 아니라 세계의 꽃으로 발돋움할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화려(華麗)한 화관(花冠), 긴 개화기(開花期), 공해에 잘 견디고 추위에 강하며 어디서나 잘 자라는 이 꽃은 우리 민족성(民族性)을 그대로 빼어놓은 듯한 꽃이다. 또한 수수한 수형은 아주 서민적이어서 가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만 하다. 무궁화는 『화랑』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이름이 붙여진 수많은 품종이 있으며 그 가운데 새 아침을 도안화(圖案化)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표현하였다.

## 14. 역대 기념주화

기념주화란 국가적인 행사와 역사적인 인물의 공적을 기리고 기념비적인 특정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아름답고 예술성이 높은 특별한 디자인으로 발행되는 주화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도 1975년에 국내 최초로 광복 30주년 기념주화를 발행한 이래 다양한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 광복 30주년 기념주화 / 1975. 8. 14

우리민족이 일제식민(日帝植民) 통치하에서 해방을 맞은지 30년이 되는 1975년 8월 15일 이날을 기념하여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독립정신을 찬양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액면가 백원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앞면 도안은 독립문과 뒷면에는 태극기를 든 여인상을 각각 주 소 개 로 하여 조국광복을 상징하였다.



백원 백동화

###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기념주화 / 1978. 6. 12

1978년 제 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액면가 오천원 은화와 오백원 백동화 등 2화종(貨種)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은화에는 고구려(4세기~6세기)의 벽화인 수렵도를 백동화(白銅貨)에는 현대 사격자세를 도안화하여 고대와 현대의 사격모습의 변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오천원 은화

오백원 백동화

공통면

## 제5공화국 기념주화 / 1981. 8. 14

1981년 8월 제 5 공화국 탄생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발행화종은 액면 이만원 은화와 천원 니켈화 백원 백동화 등 3화종이며 이만원화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하여 남녀시민, 근로자, 군인, 학생 등 국민각층의 인물상으로 국민의 화합된 의지를 상징하였고 천원화는 서조(瑞鳥)를 뜻하는 봉황을, 백원화는 무궁화를 각각 주소재로 도안하였다.



이만원 은화



천원 니켈화



백원 백동화



공통면

## 제24회 서울올림픽유치 기념주화

1981년 9월 30일 제 84 차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올림픽의 서울유치를 거국적으로 경축하고 올림픽 지원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만원 은화와 만원 은화, 천원 백동화 등 3화종씩의 기념주화를 2차에 걸쳐 발행하였다. 1차의 이만원 은화는 올림픽 경기를 상징하는 성화, 만원화는 서울의 관문이며 국보 제1호인 남대문과 오륜을 상징한 다섯송이의 무궁화, 그리고 천원화(貨)는 전통문화로서 축제를 의미하는 민속무를 도안화하였다. 그리고 2차에는 이만원 은화에 우리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을, 만원 은화에는 경희루위에 다섯마리의 비둘기가 평화를 기약하며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천원화에는 민속무인 부채춤을 그려 넣었다.

### 제1차 발행 / 1982. 9. 30



이만원 은화



만원 은화



천원 백동화

제2차 발행 / 1983. 8. 1



이만원 은화



만원 은화



천원 백동화

공통면



천주교전래  
200주년 기념주화  
/ 1984. 5. 1

1783년 복자 이승훈(福者 李承薰)이 동지사(冬至使) 사절을 따라 중국 북경에 가게 되어 약 40일간 머물면서 프랑스의 그라몽(Gramont)신부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이듬해인 1784년 2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월에 교리책, 십자가, 성화 등과 그밖에 귀중한 자료들을 받아서 서울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도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가 바로 우리나라에 하느님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그로부터 200년이 되는 1984년 천주교 전래(傳來)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원 은화와 천원 백동화 두화종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은화 만원화에는 김대건 신부와 103위 성인 가운데에서 프랑스의 범 로렌쥬주교, 동정궁녀 박루시아를 주소재로 하였으며, 천원 백동화에는 사적 제258호인 명동성당이 새겨져 있다.



만원 은화



천원 백동화



공통면

## 대전세계박람회 기념주화 / 1993. 6. 9

1993년 6월에 열린 대전세계박람회는 세계 1백 여개국과 20여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전통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란 부제를 가지고 개최되었으며, 1993년 6월 9일 50000원, 25000원, 10000원, 5000원(A,B), 1000원화 등 기념주화 6종이 발행되었다.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한빛탑, 박람회 공식 휘장 등이 새겨져 있다.



오만원 금화



이만오천원 금화



만원 은화



오천원 은화



오천원 은화



천원 적동화



공통면

## 광복 50주년 기념주화 / 1995. 8. 14

1995년 8월 14일에 발행된 광복 50주년 기념주화는 10000원화와, 5000원화 2종으로 발행되었다. 도안으로 만원 화에는 안중근 의사의 초상과 “大韓民國”서명 및 손바닥 낙관이, 오천원 화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과 휘날리는 태극기가 들어가 있으며 뒷면에는 두 종류 모두 공통으로 광복 50주년 기념 휘장이 새겨져 있다.



만원 은화



오천원 니켈화



공통면

---

##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주화 / 1998. 8. 14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로 앞면은 우리 고유의 악기인 북모양을 형상화 한 것으로 칠보태극기무늬가 중심이 되고 무궁화 꽃이 떠 받들고 있으며, 뒷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공식 휘장을 표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민 대화합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온 국민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만원 은화

---

## 새천년 기념주화 / 2000. 1. 3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발행된 밀레니엄 기념주화는 두가지 금속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주화로서 앞면에는 혼천의와 양부일구를 뒷면에는 두 손으로 2000이라는 숫자를 잡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새천년준비위원회 공식휘장이 디자인 되어 있으며 2000의 세계의 원은 실타래와 무한대를 나타내어 새로운 천년의 시간과 공간의 이미지를 의미하였다.



이천원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기념주화 / 2000. 10. 18

ASEM(Asia-Europe Meeting)은 한·중·일 및 ASEAN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집행위원장 등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정상회의를 의미하며, 2000년 서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 앞면에는 아시아·유럽지도가 뒷면에는 2000년 서울 개최 엠블렘이 새겨져 있다.



이만원 은화

2002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기념주화 / 2002. 9. 27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7일 기념주화가 발행 되었다. 금화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5개 지역의 아시아(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상징하는 다섯 개의 손을 한데 모아 놓은 그림과 가야토기의 빗살 문양을 배경으로 한 가야시대의 가야금관을, 은화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이번 대회의 마스코트로 갈매기를 형상화한 '두리아', 동래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동래야류와 동래학춤을 담았다. 또 백동화에는 경기종목의 픽토그램과 성화, 황동화에는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와 부산 앞바다 오륙도를 새겨 넣었다.



삼만원 금화



이만원 금화



만원 은화



만원 금은화



이천원 백동화



이천원 백동화



공통면

광복 60주년  
기념주화  
/ 2005. 8. 12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로 앞면은 어른의 손위에 놓인 아이의 손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찬 미래를 형상화하였고 뒷면에는 단결, 합일, 도약이라는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특수주화제조기법인 부분 금도금을 적용한 최초의 주화이다.



이만원 은화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념주화  
/ 2005. 11. 14

2005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4일 발행되었다. 앞면에는 부산 동백섬에 위치한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태극 형태와 조화시켜 개최국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뒷면은 2005년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파도의 이미지로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기념주화 최초로 동일 금속 유광, 세미유광, 무광의 3단 광택을 구현하였으며 컬러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여 엠블럼 고유의 색상을 아름답게 재현하였다.



이만원 은화



---

##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주화 / 2008. 8. 8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로 앞면은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 주제어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와 휘날리는 태극기의 빛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뒷면은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엠블렘을 채색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삼만원 은화

---

## 전통민속놀이 (강강술래) 기념주화 / 2008. 10. 17

전통민속놀이를 주제로 발행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리즈 기념주화로, '탈춤'이 소재이며, 12각형으로 발행되었다. 탈춤은 우리 민중의 연희(演戲)로 그들의 삶과 애환을 풍자적으로 담고 있다. 앞면에는 은울탈춤과 봉산탈춤의 역동적인 춤사위를 표현하였고, 뒷면에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양반탈을 중심에 두고 강령탈춤(취발이), 은울탈춤(원숭이), 봉산탈춤(팔목중), 송파산대놀이(취발이), 양주별산대놀이(목중), 통영오광대놀이(말뚝이)에 등장하는 6개의 탈을 배치하였다.



삼만원 은화

전통민속놀이  
(영산줄다리기)  
기념주화  
/ 2009. 10. 16

전통민속놀이시리즈 기념주화 중 세 번째 주화로, ‘영산줄다리기’가 소재이며 12각형으로 발행되었다. 영산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 민속놀이로 주로 경상남도 일대에서 행하여지는 놀이로서, 앞면에는 비녀목으로 연결된 암·수줄의 결합부위와 장군의 지휘아래 줄을 당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 뒷면에는 줄다리기 시작 전에 줄을 들고 이동하는 마을 사람들과 흥겨운 농악놀이패를 표현하였다.



이만원 은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기념주화  
/ 2010. 10. 1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주제로 발행되는 시리즈 기념주화 중 첫 번째 주화로, ‘종묘’를 소재로 발행되었다. 종묘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서,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중요 건축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앞면에는 종묘의 중심건물인 국보 제227호 종묘정전(宗廟正殿)의 모습을, 뒷면에는 종묘제례(宗廟祭禮) 절차 중 초헌례(初獻禮)의 한 장면을 표현하였다.



삼만원 은화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주화  
/ 2010. 11. 3

2010년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발행되었다. 앞면은 2010년 8월 옛 모습으로 복원된 광화문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20개 주요국의 명칭을 도안으로 사용하였으며, 뒷면은 중앙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심벌인 청사초롱을 채색기법으로 표현하고, 상단에 대외메시지인 'Shared Growth Beyond Crisis' 문구를 넣었다.



삼만원 은화

2011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념주화  
/ 2011. 8. 11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기념하여 발행되었으며, 앞면은 높이뛰기 선수와 육상트랙을 도안으로 사용하였고, 뒷면은 중앙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엠블램을 채색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오만원 은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주 화  
산섬과 용암동굴)  
기념주화  
/ 2011. 10. 14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등재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시리즈 기념주화 중 두 번째인 이번 주화는 앞면에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을, 뒷면에는 당치물동굴의 내부 모습을 각각 표현하였다.



오만원 은화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 기념주화  
/ 2012. 3. 15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된 주화로, 앞면은 평화로운 인류 공존의 소중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지구와 지구를 받치고 있는 손을 도안으로 사용하였고, 뒷면은 중앙에 Seoul(서울), Security(안보), Summit(정상회의)을 상징하는 'S' 형상을 담은 공식 로고를 채색기법으로 표현하고, 상단에는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 문구를 넣었다.



오만원 은화

## 여수 세계박람회 기념주화 / 2012. 5. 4

바다와 연안에 관련된 인류 공동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주제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6종의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각 주화의 앞면 이미지는 국제관(이만원 금화), Big-O(만오천원 금화), 스카이라워와 담수화(만원 은화), 한국관 및 주제관(오천원 은화), 박람회 마스코트인 여니와 수니(천원화)를 도안으로 사용하였고, 뒷면에는 박람회 엠블럼 공통으로 표현하였다.



이만원 금화



만오천원 금화



공통면



만원 은화



오천원 은화



오천원 은화



공통면



천원화



## 2012 세계자연보 전총회 기념주화 / 2012. 8. 28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기념하여 발행되었으며, 앞면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 중 7종(귀신고래, 북극곰, 물개, 바다거북, 황제펭귄, 긴발가락소쩍새, 노랑귀남아프리카앵무)을 새겨 넣어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뒷면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로고를 채색기법으로 나타내고 총회 슬로건을 넣어 자연보전의 가치 확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만원 은화

## 유네스코 세계유 산(석굴암과 불국사) 기념주화 / 2012. 11. 30

유네스코 세계유산시리즈 기념주화 중 세 번째 주화로, '석굴암과 불국사'를 도안소재로 발행되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의 건축·수리·종료·예술 등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불교 유적이며, 1995년 rm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앞면에는 석굴암 본존불, 원형 주실, 금강역사상을, 뒷면에는 청운교, 백운교를 중심으로 불국사 전경을 각각 표현하였다.



석굴암과 불국사 기념주화

## 15. 월드컵 기념주화



하계 및 동계 올림픽 못지않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로 월드컵 세계축구선수권대회가 있다. 이 대회는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래 1942년과 1946년의 두차례 대회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열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 4년 마다 유럽과 남미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월드컵대회에서 제일 처음 발행된 기념주화는 1978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11회 대회를 기념하는 은화 3종, 황동화 3종을 발행하였으며 1982년 제 12회 스페인대회에서는 알루미늄, 황동, 백동화 등 6종의 비 귀금속화만을 발행하였다. 1986년 13회 대회는 16년 만에 다시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으며 금화 1종, 은화 3종이 프르프(proof) 화로 발행되었고, 2002년 17회 대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순금과 순은을 소재로 월드컵 기념주화 역사상 최초로 6가지 색상의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한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 16. 올림픽 기념주화



고대 올림픽경기는 그리스 시대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행사가 그 시초였다. 최초의 고대 올림픽 경기는 B.C 776년에 시작하여 1200여년 동안 4년을 주기로 행하여졌으며 19세기에 들어 프랑스의 피엘 쿠베르탱(P. Coubertin)남작에 의하여 1896년 4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제1회 국제 올림픽 대회가 개최 됨으로써 근대 올림픽의 계기가 되었다.

### 하계올림픽

1952년 헬싱키대회때 처음 은화2종이 액면가에 발행된 이후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서는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로 대회 기념을 위해 발행되었으나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때부터 금화를 비롯하여 20여종이 넘는 다양한 주화가 발행되어 스포츠 기념화의 새 장을 열기 시작했으며 1988년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32종의 금, 은, 백동화가 발행되어 화폐 수집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1924년 1월 프랑스 샤모니(Chamonix)에서 제 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기념주화는 1964년 인스부르크(Innsbruck) 대회 때 은화 1종이 처음 발행되었고 그 이후 1972년 삿포르대회의 백동화 1종, 1976년 인스부르크대회의 은화 4종, 사라예보(SARAJEVO) 대회의 금화 3종과 은화 15종에 이어 1988년 캘거리(CALGRAY)대회에는 금화 1종, 은화 10종이 발행되었다.

# 17. 주화는 어떻게 만들까?



한국은행의 발주에 따라 주화의 발행년도, 액면표시, 발행은행, 소재와 크기, 문양이 결정되면 디자인 원도를 만듭니다. 원도에 따라 6배 정도의 크기로 유토 조각을 한 후, 다시 석고를 이용하여 더욱 정밀하게 조각합니다.

이 조각 원판으로 단단한 수지판을 복제하여 축조기계를 통해 실제 주화크기로 금속봉에 축소조각하면 원극인이 만들어집니다. 원극인을 보존하기 위해 압사방식으로 여러 개의 똑같은 극인을 찍어낸 후, 극인의 표면을 다듬고, 쉽게 닳지 않도록 열처리를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극인이 완성되면 고속 압인기에 장착하고 주화의 재료가 되는 소전을 넣어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양면을 동시에 찍어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주화는 계수, 검사, 계수포장, 계량의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으로 공급된 후 시중에 유통됩니다.

## 주화제조공정도

1. 디자인: 새로운 동전의 앞, 뒷면을 디자인
2. 조각: 석고조각으로 동전의 원형을 만들
3. 극인제조: 조각판을 이용하여 동전을 찍기 위한 원형틀인 극인을 만들
4. 동전모양의 금속판: 동전 크기의 아무 것도 새겨지지 않은 금속판을 만들
5. 압인작업: 동전을 찍는 기계인 압인기에서 극인으로 찍으면 동전 문양이 나타남
6. 자동 검사: 자동으로 동전에 문양이 제대로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7. 포장: 숫자를 세고 포장

